정이 많은 다정한 부처님 마음
〈情〉



新 불교사자성어

① 다정불심(多情佛心)

정(情)이 많은 다정한 부처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정이 많다" 혹은 "저 남자는 다정다감해"라고 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고도 한다.

다정(多情)하다는 것은 주거 문화적으로 공동체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대가족문화' 였다. 한 집에서 자식, 손자와 함께 사는 3세대 공동문화였다. 농경사회의 특성상 인원이 많아야 했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산업사회 이후 핵가족사회가 되면서 지금은 칸칸이 담을 쌓고 문을 닫고 사는 아파트 문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초핵가족시대이다.

산업화는 대가족문화를 해체시키고 핵가족문화를 탄생시켰다. 농경사회에서 인간생활의 기초 단위였던 대가족제도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새로운 변화는 가치관에도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는데, 그것이 경쟁 · 개인주의 · 이기주의 소외 · 낙오 · 고독 · 외로움 · 그리움 등이다.

고독 · 외로움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치병이 되기도 한다. 의학이 총알처럼 발달하고 신약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특효약은 없는 것 같다.

'다정(多情)' 은 곧 부처님의 대자대비, 무연자비(無緣慈悲), 애민(哀愍)중생이다. 자비심은 개인주의 · 이기주의를 해체시키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고독과 외로움을 와해시킨다.

'다정불심' 은 부처님의 여러 일화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천안제일 아니룻다(아나율) 존자와 부처님과의 일화를 통해 다정불심의 전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아니룻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깜빡 졸아서 부처님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에 크게 각성한 아누룻다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잠을 자며 수행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아누룻다 존자는 계속 밤잠을 자지 않고 수행했다. 아누룻다 존자는 결국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그 후 천안제일(天眼第一)로 칭송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 스스로 탁발이며 의복을 수선하는 등 모든 일을 손수 해야 했다. 하루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던 아니룻다 존자가 바느질을 하다가 "누가 내 옷을 바느질해 주는 공덕을 쌓아 주겠는가?"라고 말하여 도움을 청했다.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군가 바느질을 해주었는데 그분이 부처님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룻다 존자가 황송해 하며 "양족존이신 부처님께서 지으실 공덕이 더 있습니까?"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나보다 더 복 짓는 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또 불교에는 자비, 다정(多情)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이 있다. 관음보살은 자그마치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천수천안)을 갖고 있다. 비록 표현은 천 개라고 했지만 천만 억 개로 변신한다. 관음보살님은 빅데이터 같은 용량으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 고독, 슬픔 등을 일견(一見)에 포착한다. 게다가 지옥중생을 모두 건지기 전에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고 지옥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1인 시위자 지장보살님도 있다.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고, 좀 쌀쌀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 있다. 차가운 사람보다 다정다감한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주변사람들이 대부분 우군이 되고 힘이 되어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삭막한 오늘의 한국사회, 이기주의로 너나할 것 없이 파편화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기 십상이다. 양보와 배려는 곧 인격이고 인간사회를 맑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것이 곧 다정불심(多情佛心)이고, 대자대비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화두 공부 지남 되길 바라며…



격절록 강설

① 격절록(擊節錄)을 연재하며

〈격절록(擊節錄)〉은 원오(圓悟) 극근(克勤) 선사의 공안집(公案集)으로 설두(雪竇) 중현(重顯)의 백칙(百則) 염고(拈古)에 착어(着語)와 평창(評唱)을 한 것이다. 원 제목은 〈불과격절록(佛果擊節錄)〉이며, 〈불과원오격절록(佛果圓悟擊節錄)〉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연재할 본서는 〈만신속장경(卍新續藏經)〉 67책冊에 수록된 것으로 중화전자불전협회(中華電子佛典協會)에서 2014년도에 전산화한 것이다.

본서는 종문 제 1서(宗門第一書)로 알려진 〈벽암록(碧巖錄)〉과 구성과 형식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다만 벽암록에 보이는 수시(垂示, 요점을 제시하는 서문)가 없을 뿐이다. 또한 벽암록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중심으로 선별한 고칙(古則) 백 가지에 송(頌)을 한 〈설두송고(雪竇頌古)〉를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본서는 〈설두염고(雪竇拈古)〉 - 일백 고칙에 염(拈, 서술 형태의 비평)을 한 것- 를 다루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본서는 100칙 공안과 이에 대한 설두 선사의 염, 그리고 원오 선사의 착어(着語, 촌평)와 평창(評唱, 해설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격적인 〈격절록〉의 소개에 앞서 원오 선사와 설두 선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두 중현(980~1052)은 송나라 운문종(雲門宗)의 승려로 자는 은지(隱之)이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출가하여 인선(仁銑)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지문(智門) 광조(光祚) 선사의 법을 잇고, 동정(洞庭)의 취봉사(翠微寺)와 항주(杭州) 영은사(靈隱寺)와 설두산(雪竇山) 자성사(資聖寺) 등에 주석하면서 종풍을 진작하였다. 세수 73세, 법랍 50년으로 시호는 명각대사(明覺大師)이다. 시문이 뛰어났으며 〈설두송고〉와 〈설두염고〉 그리고 〈조영집(祖英集)〉과 〈어록(語錄)〉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다음으로 원오 극근(1063~1135)은 송나라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枝派)의 승려로 자는 무착(無着)이고, 남송의 고종으로부터는 원오(圓悟), 북송의 휘종(徽宗)으로부터는 불과(佛果)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또한 입멸 후 받은 시호는 진각(眞覺)이다. 묘적사(妙寂寺) 자성(自省) 화상(和尙)에게 출가해서 문조(文照) 법사(法師)에게 삼장(三藏)을 배우고, 민행(敏行) 법사에게 〈능엄경(楞嚴經)〉을 전수받았다.

이후 오조(五祖) 법연(法演) 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당시 불감혜근(佛鑑慧懃, 1059~1117), 불안청원(佛眼淸遠 1067~1120)과 더불어 '종림삼걸(叢林三傑)', '법연 문하의 2근1원(演門之二勤一遠)', '법연 문하의 삼불(演門三佛)' 등으로 세상에 불렸다.

육조사(六祖寺)와 협산사(夾山寺)를 비롯해, 도림사(道林寺) · 태평흥국사(太平興國寺) · 만수사(萬壽寺) · 용유사(龍游寺) · 진여선원(真如禪院) 등 여러 사찰에서 주석하면서 법도(法道)를 떨쳤다. 특히 소각사 · 협산사(영천원) · 도림사에서 〈벽암록〉 강의가 세 차례 이루어졌다. 다만 〈격절록〉에 대한 강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알 수가 없다. 세수는 73세이고, 문하에 호구소륭(虎丘紹隆, 1077~1136)과 간화선의 주창자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상기 〈벽암록〉과 〈격절록〉, 그리고 〈원오심요(圓悟心要)〉와 〈어록(語錄)〉 등이 있다.

격절(擊節)이란 '핵심을 찌른다' 는 뜻으로, 본서는 말 그대로 화두 타파를 위한 정곡(正鵠)의 말씀이다. 또한 '격절' 이라는 말에 박자를 맞춘다는 뜻이 있듯, 원오 선사가 설두 선사에게 박자를 맞춰 응대한 화답서이기도 하다.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한다는 격절탄상(擊節嘆賞)이라는 말처럼 본서가 화두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지남(指南)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해년(己亥年) 벽두에 조심스럽게 그 첫발을 내딛는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① 믿음(信) 편

믿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우리는 평소 '믿는다' 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윤회를 믿어.' 와 같은 종교적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한용운이 말한 님은 조국이라고 믿어.' 와 같은 일상적 믿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구분을 하면서 살지 않는다. 믿음이란 용어가 지니는 일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종교와 과학, 신앙과 사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해석이나 주장, 혹은 예측이나 결론, 평가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 예컨대 앞서 말한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에서의 님을 누군가는 부처님이라고 믿지만, 다른 누군가는 애인이나 조국이라고 믿는다. 모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각자가 님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나 결론을 내릴 때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한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평가나 해석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말한 것이 옳거나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자신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예측, 결론,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정말 옳거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믿음을 옳은 믿음, 잘못된 믿음, 불완전한 믿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옳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평가가 옳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둥근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바로 명확한 증거다. 이처럼 강력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옳은 믿음이다. 이러한 옳은 믿음을 앎(knowing), 혹은 지식이라고 한다.

이처럼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그것이 사실이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1+1=2라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명제가 옳기 때문이다. 물론 앞의 1과 뒤의 1이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

둘째로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 있다. 지구가 네모나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믿음들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는 천동설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앎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동설이 오늘날에는 상식이지만, 서구 중세사회에서는 기독교적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금지된 믿음이었다. 그들은 믿은 것이지, 결코 안 것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이는 마치 '사과 맛이 파랗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이며,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왜곡된 믿음일 뿐 옳은 믿음, 즉 앎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불완전한 믿음도 있다. 예컨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생명체가 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믿음일 뿐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믿음을 옳은 믿음과 잘못된 믿음, 불완전한 믿음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사실이나 앎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